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Imago Imaginis Dei*)’ 으로서의
인공지능 이해: 기독교론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Understanding AI as ‘the Image of the Image of God(*Imago
Imaginis Dei*)’ : In the Perspective of Christological
Anthropology

논문초록

-
- 1) Cortez (2016) 또한 자신의 'Christological Anthropology'를 전개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의 성육신에 대한 초점, 줄리안(Julian)의 십자가상의 사랑에 대한 초점, 루터(Luther)의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의(義)에 대한 초점,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의 예수의 특별한 신-의식에 대한 초점, 바르트(Barth)의 선택의 교리, 지지올라스(Zizioulas)의 온전한 인간성의 증보에 대한 초점, 콘(Cone)의 예수의 억압받는 자들을 대신한 해방적 행위에 대한 초점을 두루 검토한다. 그러나 Cortez (2016)의 경우 기독교적 인간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구원론적 관점을 일관적으로 견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2) 칼빈(1559/1988, I.15.7)이 본래 사용한 용어는 *intellectus*로서, ‘지성’ 혹은 ‘오성(五性)’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경우 *intellectus*는 사실성 이성(*ratio*)와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된다(문병호, 2013, p. 90). 본고에서는 *intellectus*가 일반적으로 지능을 나타낼 때 쓰이는 ‘intelligence’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고 논지를 전개한다.

3) 여기서 '인지주의'는 마음에 대한 컴퓨터주의와 거의 유사한 좁은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4) 원문에서는 'University of Seoul'이다.

5) Rapaport (1988)는 각주에서 '한국어 방 논증'이 'Albert Hanyong Yuhan'에 의하여 제안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는 아마도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의 유한용 교수일 가능성이 있다.

6) Noll (2011/2015)의 국역본에서는 성육신의 ‘인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pp. 60-61) 그 맥락상 원저자의 의도는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인성’ 혹은 ‘인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에 있어서, 인성과 신성은 ‘인격(person)’ ≡ ‘위격(hypostasis)’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인격 혹은 위격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위격 안에서 위격을 통해서만 연합되고 교통한다. 신인양성의 비(比)위격성과 내(內)위격성 및 위격적 연합에 관하여는 문병호(2016)의 5.5를 참조.

Θεοτόκος

7)

8) 여기서, 바르트가 이야기하였던 신-의식(God-consciousness)이 총만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고찰해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9) 여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된다고 하여서 그가 온전한 신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신성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참고문헌

